

2012/13 FW Women Collection _ COLOR

▶ 시즌 컬렉션의 공통적 특징은 레드(red)가 거의 모든 색조와 톤으로 모든 상품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레드 컬러와 함께 오렌지톤이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좀 더 옐로우 빛을 띠는 텐저린(tangerine) 컬러가 새로운 패션 컬러로 나타났다. 블랙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베이스 컬러로 눈에 확 띄는 화이트와 함께 사용되었으며 새롭게 나타난 뉴트럴 컬러로 아름다운 더스티 누드 컬러가 다시 나타나며 카멜(camel)을 주목할 만하다. 사용된 전반적인 컬러는 아래의 칼라맵으로 표현된다.

- ▶ Warm color
- ▶ Cool color
- ▶ Base color

➢ 텐저린(tangerine) 컬러



WARM COLORS



COOL COLORS



BASE COLORS



2012/13 가을 시즌의 컬렉션은 1970년대로부터 영감을 얻어, 펌킨(pumpkin), 레이즌(raisin), 마룬(maroon) 컬러와 같은 따뜻한 컬러들의 향연이 펼쳐졌다. 특히, 퓨어레드(pure red) 컬러는 국제적인 런웨이에서 빈번히 등장하여 이번 시즌의 메인 컬러로서 큰 활약을 하였다. 오렌지 톤 역시, 지난해에 이어 이번 시즌 그 강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다수의 런웨이를 물들였던 오렌지예이드 컬러는 붉은 빛을 품어 더욱 세련되어졌고, 옐로우 컬러가 가미된 오렌지톤은 새로운 텐저린(tangerine) 컬러로 재탄생 되었다. .

RED



이번 시즌 런웨이에서는 레드 컬러의 활약이 단연 돋보였다. 특히, 리치(rich)하고 퓨어(pure)한 느낌의 레드 색조는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FUSCHIA



이번 시즌 푸크시아(Fuchsia) 컬러는, 80년대 풍의 네온 푸크시아, 모던한 퍼플 컬러가 가미된 연보라(orchid) 빛의 푸크시아 등 다양한 음영으로 각색되어 런웨이를 물들였다.

MAROON



ELIE SAAB

MARTIN GRANT

LANVIN

AKRIS

CELINE

지난 가을, 베리(Berry) 빛의 마룬(Maroon) 컬러가 이번 시즌에는 브라운 톤의 마룬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파리의 랑방과 셀린느 컬렉션에서 마룬 컬러의 향연이 돋보였다.

RAISIN



VICTORI BECKHAM

JO NO FUI

HAUTE

VERA WANG

BRIONI

이번 시즌, 초콜릿을 연상시키는 듯한 레드 색조의 레이즌 컬러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미드톤 (midtone)의 레이즌 컬러부터 깊고 강렬한 색채까지 다채롭게 수놓으며 마룬 컬러와 나란히 이번 시즌의 메인 컬러로서 큰 활약을 하였다.

PUMPKIN



JILL STUART

SPORTMAX

MARC BY MARC JACOBS GABRIELE COLANGELO

SPORTMAX

이번 시즌, 역시 오렌지 컬러 계열이 대세임을 증명하듯, 70년대 풍의 펌킨 컬러가 런웨이를 물들었다.

TANGERINE



BERNARD CHADRAN

BURBERRY PRORSUM

FRANKIE MORELLO

MARK FAST

MARIA GRACHVOGEL

옐로우 색조의 텐저린 컬러 역시 이번 시즌 오렌지 컬러의 여세를 몰아갔다.

MUSTARD



지난 가을과 비교하여 머스타드(mustard) 컬러의 인기는 약간 하향하는 듯한 기미를 보였지만, 이번 시즌 머스타드는 골드나 레드의 색조와 결합되어 보다 다채롭고 풍부하게 표현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시즌 차가운 컬러는 약간 주춤해진 듯하나 코발트 블루와 블루 음영이 강조된 잉크 톤 컬러는 지난해에 이어 역시 조용히 여세를 이어갔다. 또한, 지난 해 그린 색조의 피콕(peacock)과 블루 색조의 페트롤(petrol)은 이번 시즌 페리윙클(periwinkle)로 업그레이드되어 런던과 파리 컬렉션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레드나 블루 색조의 퍼플 컬러 또한 키 컬러로써 이번 시즌의 귀환을 알렸다.

CHARTREUSE



지난 시즌 포인트 컬러로 선보여졌던 차트라우스(chartreuse: 연초록)는 이번 시즌 옐로우와 그린 색조를 포함해 보다 다채롭게 표현되었으며 메인 트렌드 컬러로써 자리매김을 하였다.

O.D.



O.D. 그린 컬러는 옐로우와 블루 색조가 보다 강조되어ミリ터리 감성을 자극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EMERALD



에메랄드(emerald) 컬러는 다수의 메이저 런웨이에서 임팩트 컬러로 사용되면서 이번 시즌의 키 컬러로 급부상하였다. 특히, 옐로우나 블루 색조의 미드톤 에메랄드가 강렬함을 선사했다.

PERIWINKLE



세계적인 다른 패션 도시의 컬렉션과 비교해보면, 파리 컬렉션에서는 꾸준히 참신한 트렌드 컬러를 선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시즌 파리가 새롭게 주목한 컬러는 페리윙클이다. 지난 컬렉션에 비해 올해에는 블루계열 컬러의 약세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페리윙클은 런웨이에 세련미를 더하여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PETROL



지난 시즌 그린색조의 피콕 컬러가 런웨이를 블루빛으로 물들였다면, 올해에는 블루색조의 페트롤 컬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듯 하였다. 특히, 런던 컬렉션에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버버리 쇼에서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다.

COBALT



코발트 컬러의 인기 행진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 가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코발트는 밝은 계열의 블루나 퍼플 색조를 띄웠고, 특히 이번 시즌은 의류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활약을 펼쳤다.

INK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잉크 컬러는 이번 시즌 런웨이의 베이스 컬러로서 그 인기를 더 해갔다. 특히, 블루 톤에 보다 깊어진 색감이 인상적이었다.

PURPLE



다수의 런웨이가 그것을 증명하듯, 이번 시즌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퍼플의 재발견이다. 특히, 레드나 블루색조의 크레용 톤 퍼플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컬러였다.

이번 가을 시즌은 베이스 컬러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블랙은 보다 다채롭고 풍요롭게 표현, 퓨어 화이트(pure white)는 다수의 런웨이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지난 해의 윈터 화이트(winter white)는 다소 주춤거리는 듯하나, 반면 아이보리가 강세를 보였다. 특히, 옐로우 색조의 아이보리는 새로운 프렌치 바닐라(French vanilla)로 탄생되었으며 지난 해 독보적 강세였던 샌드(sand)와 스톤(stone), 카키 컬러는 보다 클래식한 카멜과 누드 톤으로 변모하였다. 밝은 계열이나 미드톤 그레이 컬러 역시 큰 주목을 받았다.

BLACK



이번 시즌 컬러 팔레트의 가장 큰 특징은 블랙이 레이스, 퍼, 가죽 등을 통해 보다 다채롭고 풍요롭게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블랙의 강세는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GREY



그레이 컬러는 여러 도시의 런웨이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의 신호를 알렸다. 이번 시즌 그레이는 보다 다채로운 톤으로 선보여졌고 실용적 스타일링 보다 럭셔리한 느낌으로 표현되었다.

CHOCOLATE



이번 시즌 초콜릿 톤은 보다 리치(rich)하고 복합적인 느낌으로 표현되었는데, 특히 밀크 초콜릿과 깊은 다크 초콜릿(very deep dark chocolates) 컬러의 강세가 돋보였다. 또한 지난 시즌의 레드 색조가 가미된 브라운은 보다 채도가 낮은 초콜릿 컬러로 대체되었다.

CAMEL



지난 봄 시즌, 독보적인 강세를 보인 샌드, 스톤, 카키와 같은 뉴트럴(neutral) 톤은 옐로우와 레드 색조의 카멜 컬러로 대체되어 클 활약을 선보였다.

HONEY



VPL BY VICTORIA BARTLETT

MICHAEL KORS

MICHAEL KORS

CALVIN KLEIN

MICHAEL KORS

이번 시즌의 허니(honey) 컬러는 옐로우나 누드 톤이 가미되어 보다 럭셔리한 분위기를 풍겼다. 또한 지난 시즌과 비교하여 보다 다채로운 컬러감이 눈에 띄었고 레이어드 되는 형식 등의 새로운 시도 역시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NUDE



TEMPERLEY LONDON

TODD LYNN

ALEXANDER WANG

BOTTEGA VENETA

PHILIP LIM

누드 톤의 컬러 역시 다수의 런웨이를 통해 화려한 부활을 열었다. 이번 시즌의 특징은 누드 톤이 보다 럭셔리한 소재에 풍요롭게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옐로우나 레드 색조의 컬러가 특히 강세를 보였다.

FRENCH VANILLA



PEACHOO KREJBERG

ROULAND MOURET

CHLOE

MUGLER

DIOR

이번 파리 컬렉션에서는 프렌치 바닐라 음영의 베이스 컬러가 새롭게 소개되었다. 지난 두 시즌에 걸쳐 아이보리 컬러가 점점 옐로우 색조를 띄어온 점을 감안한다면, 프렌치 바닐라의 등장은 이미 예고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IVORY



HAKAAN

AQUASCUTUM

LAURA BIAGIOTTI

MAX MARA

ISABEL MARANT

지난 런웨이를 통해 꾸준히 강세를 보여왔던 윈터 화이트 컬러는, 이번 시즌 옐로우 톤이 가미되어 아이보리 컬러로 새롭게 변모하였다. 특히, 아이보리와 화이트가 레이어드 된 스타일링이 주목받았다.

WHITE



이번 시즌은 퓨어 화이트 컬러의 강세가 단연 돋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다채롭게 표현되며 럭셔리한 실루엣이나 퓨처리스틱(futuristic)한 스타일링을 강조하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출처: Fashion snoops

한국실크연구원 디자인개발팀